

미디어 ·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[안]

2024. 3. 13.



미디어 ·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국내 미디어·콘텐츠 산업 현황 및 진단	2
III. 비전 및 추진전략	6
IV. 세부 추진과제	7
1. K-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	7
2. 미디어·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	12
3.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	16
4.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	23
V. 향후 계획	27

I. 추진 배경

□ 미디어·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

- 세계 미디어·콘텐츠 시장은 오리지널 및 퀄리 콘텐츠를 보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,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 불가피
- 글로벌 미디어의 등장은 경쟁력 갖춘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로이지만, 동시에 글로벌 미디어에 의한 시장 잠식 위기
 - * 국내시장 OTT 점유율(24.1월) : 넷플릭스 38% > 쿠팡플레이 25% > 티빙 17% 順

□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, 미디어 산업 성장 정체

- 국내 콘텐츠 산업은 높은 수준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, 글로벌 OTT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 전 세계로 확산
- 반면,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며 성장 정체, 적자 심화 등 어려움 가중
 - * 방송사업매출 성장률(%) : ('10) 14.9 → ('13) 6.3 → ('16) 3.8 → ('19) 2.1 → ('22) 1.8
 - ** 국내 OTT 적자 규모('21→'22, 억원) : (티빙) △762 → △1,192 (웨이브) △558 → △1,213

□ 미디어·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

- 高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·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 친화적 산업 진흥책 요구
 - * 부가가치유발계수('22, 한은) : 콘텐츠 0.84 > 방송 0.80 > 자동차 0.71 > 반도체 0.67
 - 특히,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을 통해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되고, 우수 콘텐츠가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
- ⇒ 글로벌 초경쟁 시대,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어 갈 '미디어·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'를 위한 발전방안 필요

※ 국정과제 : ⑦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, ⑧K-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

II. 국내 미디어·콘텐츠 산업 현황 및 진단

①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규모 있는, 경쟁력 갖춘 콘텐츠 제작 한계

- 글로벌 기업과의 콘텐츠 확보 경쟁 속 국내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국내 OTT사 적자 심화 및 제작사의 재원 조달 어려움 가중



- 펀드·세제 등을 통한 제작 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,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
 - * 모태펀드(K-콘텐츠 펀드, '23년 4,500억원)는 창업·중소·벤처기업으로 투자대상 한정

< 현장 목소리 >

(OTT사 A) 막대한 콘텐츠 투자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글로벌 진출이며, 자금조달이 가장 큰 미션 ('23.5월, 1차 의견수렴)

② 콘텐츠 IP 미확보로 국내 제작사의 수익구조 취약 및 글로벌 종속 우려

- 글로벌 OTT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(10~15%) 보장 후 IP를 소유·자산화, 국내 제작사는 지속적 수익 실현 불가



- IP 축적 없는 콘텐츠 산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

< 현장 목소리 >

(중소제작사 B) 중소제작사가 IP를 보유하여, 지상파와 글로벌 OTT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 ('23.11월 2차 토론회)

③ 낡은 방송규제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 저해

- 국내 방송 중 지상파·케이블TV·위성방송은 역성장 및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, 새로운 미디어인 IPTV·OTT는 빠른 속도로 성장 중



- 전통적 방송 환경에 기반한 경직적 법체계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성·혁신 제약 및 민간 투자 유입 한계

* ▲(진입) 자유경쟁 제한 ▲(소유) 규모 있는 투자 제한 ▲(광고) 재원창출 한계

< 현장 목소리 >

(사업자협회 C)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방송에 관한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, 최소 규제를 통해 산업 육성,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 필요(23.10월, 1차 토론회)

④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

- 국내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대비 낮은 편*이며, 범주별 제작 등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소수 글로벌·대기업 위주로 투자·향유**

* 美 대비 ▲AI 접목 89%(기술격차 1.3년) ▲디지털 전환 88%(기술격차 1.2년)

** 실감콘텐츠 산업의 애로사항 조사('23) : 10인 미만 및 벤처기업에서 '정책 금융자금 지원 미흡' 및 '개발·제작장비 부족의 어려움' 비중이 높게 나타남

- ICT 新기술 융합으로 기술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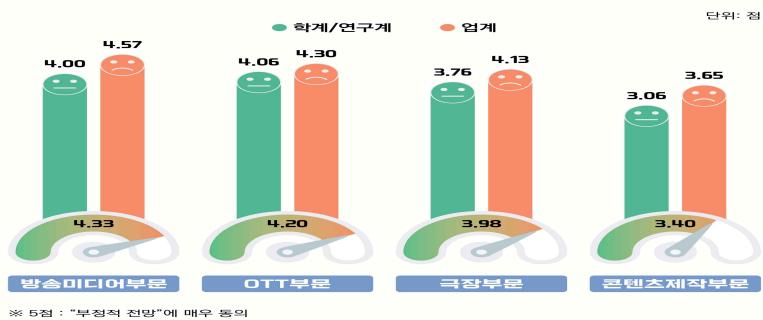
* ('23~'27) 미디어 인력 2만명 부족 / OTT사의 ICT 인력 : 넷플릭스 3,554명 vs 티빙 71명

< 현장 목소리 >

(콘텐츠 기술기업 D) 기술력 차이는 미국 할리우드의 80% 정도이나, VFX(특수시각효과)로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기술을 확장해 새로운 사업(메타버스 등)으로 발전시켜야 함(23.7월, 5차 의견수렴)

참고 :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(KISD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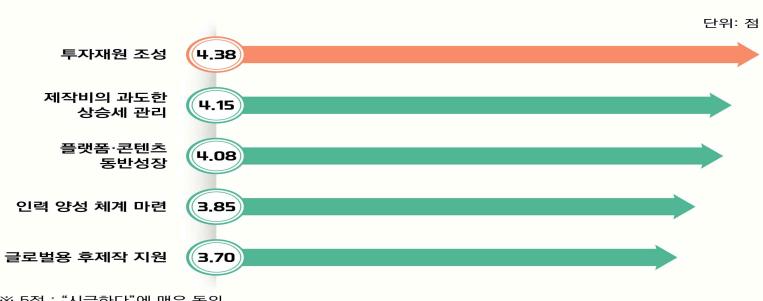
◆ 국내 미디어·콘텐츠 산업 미래 전망(5점: “부정적 전망”에 매우 동의)



◆ 미디어 규제개선 방향 관련 의견(5점: “시급하다”에 매우 동의)



◆ 산업진흥 정책 방향 관련 의견(5점: “시급하다”에 매우 동의)



S trength	W eakness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K-콘텐츠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■ 세계 최고 수준의 ICT와 네트워크 인프라 ■ 가성비 최고 수준의 제작능력 ■ 로컬 OTT 플랫폼의 존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기업 대비 낮은 투자 여력 및 IP 확보 열세 ■ 낮은 방송규제 ■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■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 취약
O pportunity	T hreat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OTT사의 국내 투자 확대 ■ K-콘텐츠에 대한 해외 팬덤 확산 ■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수용도 ■ 낮아지는 미디어·콘텐츠 국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■ 급격한 제작비 상승 ■ 콘텐츠 불법유통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증가



□ (대응방향)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**K-콘텐츠 경쟁력** 등 강점은 살리고, 약점·위협요인을 극복하여 글로벌 시장 우위 확보

- ① 대규모 민간 투자 촉진과 IP 확보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갖춘 **K-콘텐츠의 전략적 육성**
- ② 낮은 법체계와 규제 개선을 통해, 자유·창의·경쟁에 기반한 미디어·콘텐츠 산업 혁신
- ③ 글로벌 지향형 기업 육성과 AI 등 첨단기술의 신시장 선점으로 국내 미디어·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
- ④ 미디어·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

III. 비전 및 추진전략

비전	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디어·콘텐츠 강국 구현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K-콘텐츠, 세계 4대 국가로 도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콘텐츠 산업 매출액 ('22) 151조원 → ('27) 200조원 * 콘텐츠 수출액 ('22) 132억불 → ('27) 250억불 ■ 미디어 산업,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미디어 산업 매출액 ('22) 21.5조원 → ('27) 30조원 * 국내 OTT,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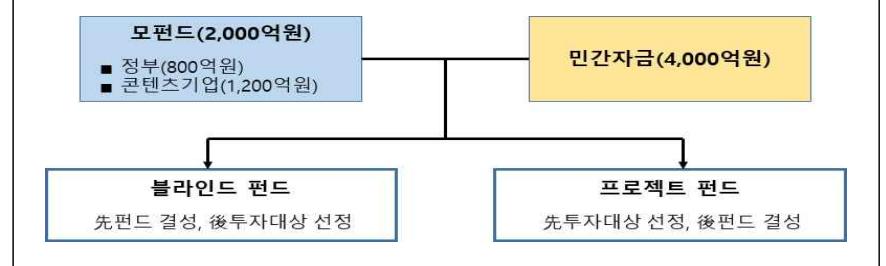
추진 전략	① K-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	1 - ①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
	1 - ② 콘텐츠 투자의 획기적 확대
	1 - ③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
	② 미디어·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
	2 - ① 인·허가제 개선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
	2 - ② 소유·겸영규제 완화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
	2 - ③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
	2 - ④ 광고규제 완화 통한 시장 활력 제고
	③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
	3 - ①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원 다각화
	3 - ② AI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미디어·콘텐츠 산업 고도화
	3 - ③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
	④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
	4 - ① 미디어·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마련
	4 - ②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

2. 콘텐츠 투자의 획기적 확대

① 1조원대 K-콘텐츠·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■■

- (정책 방향) 자본력이 콘텐츠·미디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→ K-콘텐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민간 중심 펀드 조성
 - 중소·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와 달리, 운용상 투자 제한 없이, IP 기반 대형콘텐츠에 집중 투자
 - 펀드규모 대형화 통해 국내 미디어·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
- (조성) 5년간(‘24~‘28년) 정부재정 출자 포함, 총 1조원대 규모 펀드 조성
 - ‘24년에는 총 6천억원 조성(모펀드 2천억원* + 민간자금 4천억원)
 - * 모펀드 = 정부재정(문체·과기정통부) 8백억원 + 콘텐츠 기업 등 1천 2백억원
- (운용)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IP 보유·활용을 전제로 한 투자
 - 블라인드 펀드 : 先 펀드 결성, 後 투자대상 선정
→ 창의적 콘텐츠 제작 투자에 유리
 - 프로젝트 펀드 : 先 투자대상 선정, 後 펀드 결성
→ 콘텐츠 IP 보유·활용 및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

< ‘24년 펀드 조성·운용 구조도 >



▣ 문화산업기획사 글시 세그먼트 기관 관

- 중소·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*에 출자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(3%) 신설

*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,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(문화산업법)

※ 펀드운용 세부계획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문체·과기정통부간 협의 추진

3.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

문과

- ② **콘텐츠 IP 확보 강화**는 고급 IP 사업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기획·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공

* 재무제표 위주 금융심사를 넘어 콘텐츠 IP 가치평가에 연계·보증

- ③ **IP 기반 제작 지원**은 그린버 지출 신규화 체스터 자체 스튜디오 자체

- ④ **판권 판매 확대**는 세부판 판권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기획·제작·판매·판권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'先판매계약 보증' 공급 확대*

* '23년 2,200억원(예산 200억원) → '24년 2,400억원(예산 250억원)으로 확대

- ⑤ **국내 제작 지원**은 자체 제작사와 제작 지원 보다 외부로 자체

- ⑥ **IP 기반 투자 지원**은 투자 유도 및 정부 제작지원과 연계 브랜드인 'iPICK'을 통한 투자 유도 및 정부 제작지원과 연계

* IPTV 3사-금융계-정부간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MOU체결(23.6월)

- ⑦ **IP 기관 지원 강화**는 온라인 분야 세미나(파워노트 세미나) 등 IP 확보 조건 중심 사업 규모 확대*(23년 454억원 → '24년 537억원)
* 제작~후반작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IP 확보 중심의 콘텐츠 지원체계 완성

② 콘텐츠 IP 산업 성장 기반 조성

- ① **(IP 인프라 구축)**■ 콘텐츠 창작·R&D, 기업간 협업, 전시·체험 등 제작·소비가 집약된 IP 융복합* 클러스터 구축(고양)
* 웹툰의 드라마·영화·애니화, 드라마의 게임화 등 콘텐츠 IP가 타장르·산업으로 확장
- ② **(IP 수출거점 운영)**■ IP 활용 및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의 IP 수출지원을 위해 상설 네트워킹 공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
* 성장거점(서울 상암) 운영, IP 기반 제작 워크숍 및 비즈매칭 행사 등 마케팅 지원 등
- ③ **(공정계약 확대)**■ 국가지원사업 선정시 방송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등 국내 제작사의 IP 양도 관행 관련 개선방안 모색
- ④ **(IP 보호 강화)**■ IP 활용시 법률·계약 자문, 수출콘텐츠 IP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·등록, 저작권 등록 지원 확대
* 장기적으로 IP를 중심으로 저작권 뿐 아니라 상표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검토

③ 콘텐츠 IP 특성에 맞춘 단계별 지원 강화

- **(IP 기획·개발 역량 강화)** ■ 독창적이고 경쟁력있는 콘텐츠 브랜드 지원
 -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전제로 판권(IP) 구매, 파일럿 제작, 계약·법률 자문, 후속작 및 타 산업 확장 지원



- **(IP 거래 홍보 지원)** ■ IP의 가치를 고려한 가격 책정 지원을 통해

- **(IP 사업화 지원)** ■ IP의 가치를 고려한 가격 책정 지원, 경쟁력 및 상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부가 수익 극대화

* (예) 웨드라마 '좋종소' 캐릭터 스피노프, 푸드인문다큐 '한식 랩소디 시리즈' 등

- **파생 콘텐츠**(애니메이션, 게임, 공연 등) 제작 및 실물 상품 개발, 한류 IP 협업상품(한복, 소비재 등) 개발·유통 지원 등

전략 2 미디어·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

※ 시장, 유통·교류환경 규제 완화

- **(현행)** (재)허가·승인 이후 3~5년 유효기간 설정 → 짧은 유효기간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및 장기간에 걸친 투자 전략 수립 한계
- **(개선)** 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의 여론 형성 영향력 및 공적 책임을 고려, 재허가·승인제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5년 → 7년 확대

구분	현행	개선
지상파, 종편·보도 채널	5년	7년

3.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

▣ 시장판로 확大洋화 쟁쟁한 규제 문과 발

- (현행) 제작원별(1개국 수입물, 외주/국내제작 등) 및 장르별(오락물 등) 실시간 방송량 강제 → 실효성 저하에도 과도한 규제 잔존
- (개선) ▲ 쿼터 규제를 충족하는 수준의 편성이 유지되고 있는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* 폐지 ▲ 장르 융복합 등 고려, 오락물 편성규제** 폐지
 - * 지상파·종편PP·일반PP·SO·위성방송은 영화/애니/대중음악 분야별로 1개국에서 제작한 수입물을 연간 전체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90% 이하로 편성할 것
 - **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오락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% 이하로 편성할 것

③ 방송심의규정 개편 ■■■

- (현행) 방송법 33조(방송심의규정)에 따른 17개 심의규정* 적용 → 추상적 규정으로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 및 창의성 제한
 - * 민족의 주체성 함양, 자연환경 보호, 건전한 소비생활 등
- (개선)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을 구체화하고,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 조정
 - * 구체적 방송심의 규정 개선은 주무부처(방통위)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통해 마련

▣ 시장판로 확大洋화 쟁쟁한 규제 문과

- (현행) 전체 가입자수 1/3 수준 점유율 제한 →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 출현을 사전에 제한, 대규모 투자 한계 및 자유로운 시장 재편 저해
- (개선) 유료방송,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제한 전면 폐지

구분	현행	개선
일반 PP	전체 매출의 49%↓	폐지
SO (케이블방송), IPTV	전체 가입자수 1/3 이하	

▶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

- **(현행)** 개별법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 또는 광고 시간대 제한 → 실효성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잔존

* (예) ▲ 조제유류(식품표시광고법) ▲ 고열량·저영양식품(어린이식생활법)
▲ 유료전화정보서비스(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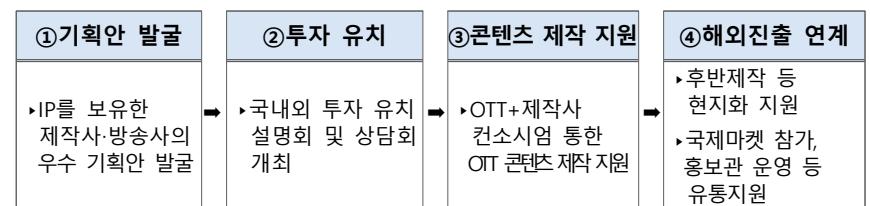
- **(개선)** 규제 필요성 낮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검토(소관부처와 협의)

구분 (소관)	현행	개선
조제유류 (식약처)	• 조제분유·조제우유 광고 금지 (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)	조제유류 정보제공 및 모유수유 권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 의견수렴 추진
고열량·저영양· 고카페인 식품 (식약처)	• 방송광고시간 제한(17~19시) •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(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)	영화·스포츠 등 어린이가 주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시간제한 완화 검토
유료전화 정보서비스 (방심위)	• 어린이 주 시청대상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·방송 금지 (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)	어린이 보호를 원칙으로 심의규정 개정시 규제완화 검토

○ **(국제화·글로벌화)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**

- 콘텐츠 확보,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작사와 연계하여 제작 지원

- 공동진출 위한 후반제작 및 해외 홍보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



- (해외 통합정보 제공)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·안착 지원을 위한 해외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확립

- (온라인 경영지원 플랫폼) 온라인 경영지원 플랫폼 개발 및 지원 강화 위한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'웰콘(WeCon)' 고도화
 - * 마케팅, 자재권, 기타 법률 등 전문가를 활용한 '찾아가는 상담' 운영 확대

④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

- (선도기업-스타트업 협력) 국내 선도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추진
 - * 선도기업(해외진출 사업 기획, 플랫폼·인프라 등 제공) + 스타트업(아이디어·혁신기술 협력) + 정부(자금·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)간 협력
- (제조서비스업 등 연관사업 연계)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K-콘텐츠 및 한류 효과를 제조·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으로 확산, 동반 진출 촉진
 - 관계부처 합동 현지 K-박람회 개최, 해외 상설홍보관 추가 설치 및 한류 연관 마케팅* 등 지원
 - * 드라마 등 해외 방영 콘텐츠 및 연관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간접광고 지원
- (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)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업계(학계·미디어·콘텐츠 업계 등)가 함께 참여하는 수출 협력체계 구성·운영
 - * 기존 「한류협력위원회」를 「K-콘텐츠 수출협의회」로 확대 개편(24.4월 출범)

- (글로벌 제작·판권 유통)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
 - 해외 제작자·바이어, 빅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방송 영상 및 콘텐츠 마켓,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·참가 지원
 - * (예) 국제방송영상마켓(BCWW), 부산콘텐츠마켓(BCM), K-콘텐츠 엑스포 개최 MIPTV·MIPCOM(프랑스), ATF(싱가포르), 베를린영화제 등 해외 마켓 참가
- (국내OTT 해외 홍보) OTT 특화 국제 시장식인 'Global OTT Awards*', '국제 OTT 포럼' 등을 활용해 OTT 콘텐츠 홍보 지원
 - * (참석대상) 국내외 OTT 플랫폼, 콘텐츠 기업, 창작자, 투자자 등 (프로그램) 국제 OTT 시장식, 투자유치 쇼케이스, 네트워킹 등

- 높은 이용료*, 소유 사업자 위주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작사가 민간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검토

과 문

- (국내 경영 환경 개선 지원, 기업 협력 확장, CG 작업공간 등을 갖춘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(대전))

③ 미래 미디어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및 메타버스 육성

- (메타버스 미디어·콘텐츠 육성) 메타버스 미디어·콘텐츠를 창작·유통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*를 추진하는 한편, 관련 핵심기술 개발

* 가상환경에서의 3D 캐릭터 움직임 제작공간 조성 등 메타버스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

** ▲ 메타버스 내 영상 재현·재생성 ▲ 메타버스 내 실시간 중계 ▲ 고몰입도 자유도 실감 디바이스 기술 ▲ 대규모 관객 참여 가능한 가상 공연 기술 등

< (참고) '엔터테인먼트 방송·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' 유형 및 사례 예시 >

참여 확장형	경험 확장형	실감 확장형
 ▶ 메타버스 참여형 콘텐츠를 기준 방송매체에 송출 * (예) 더마스크드 텔런트 (MBC, '21)	 ▶ 인기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구축 및 콘텐츠 재생산 * (예) 즐거움랜드 (tvN, '21)	 ▶ 메타버스에서 공연 개최 참여 * (예) ▲ 트레비스 스캇 ('20) ▲ 아리아나 그란데 ('21) 콘서트

- (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스케일업) 1인 미디어 콤플렉스·지역센터 등 인프라를 확대*하고,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및 융합 사업화 지원**

* 현재 3개(부산, 대구, 강릉) 센터 → 9개 센터로 확대 추진

** ▲ 크리에이터미디어+타산업 융합 ▲ AI·미디어 융합 크리에이터 공모전 등

- (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)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메타버스 유망기업 및 미디어·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원*

* 기술가능성 검증 → R&D 지원 및 AC·VC 투자 → 글로벌 사업화 지원

- (미래 미디어 기반 미디어 제작 인프라 구축)
 - 이미지, 초별영상, 특수효과 등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
 - 생성형 AI 응용기술 개발, 초거대 AI*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·상용화, 기업들의 고성능 컴퓨터 자원(GPU) 활용 지원
 - *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종합추론가능한 차세대 AI(예: 오픈 AI社의 GPT 시리즈)
- (제작) 디지털 휴면 및 AI 기반 응복합 콘텐츠 제작·편집 등을 통해 제작 품질 및 효율성 향상
 - 실사 수준 동작 생성*, 감정표현·자율행동 가능한 디지털 휴면으로 고도화
 - * 현재는 얼굴부분만 3D모델로 만들고, 몸동작은 실제 사람의 동작을 촬영, 결합 중
 - 수출용 콘텐츠 후반제작을 위한 번역·자막·더빙에 AI 접목
 - * ▲ 현지어 자동더빙기술 개발 ▲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·개방 등
- (마케팅·유통) 맞춤형 영상추천을 위한 데이터 자가증식*·결합, 화질 자동개선, 실시간 압축·전송 등 관련 기술 개발 지원
 - * 국내 OTT는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가입자의 이용데이터가 극히 부족 → AI를 활용하여 소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그 수를 늘려 분석·예측

② 첨단 제작 인프라 구축

- (버추얼 스튜디오) 중소 미디어·제작사도 손쉽게 활용가능한 '공공 버추얼 스튜디오*' 구축(대전, 문경)
 - * LED Wall 및 시각특수효과(VFX) 설비를 갖추고 가상·현실 융합 영상을 실시간 구현

② 분야별 특화·전문 인력 양성

○ / **기획·제작·인력** ▶ 코리아 이 해시아 차지자 이션으로 이체 시도

○ / **OTT·국제인력** ▶ 디스플레이 디자인 및 글로벌 OTT와의 협업* 통한 현장 인력 확보(24년 신규)

* (예) '한국영화 아카데미'에 대한 넷플릭스 후원 기반으로, 글로벌 스트리밍 환경 이해를 돋기 위한 특강, 제작실습 등 교육 추진

○ / **스토리텔링** ▶ 원기 저프서 캐 코리아 시어 시체로 가족 스트

○ / **인력인력** ▶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통해 K-콘텐츠 수출 촉진(연 60명)

③ 신기술 활용 역량 높은 융합인재 육성

○ / **(기술융합인력)** ■ '뉴콘텐츠아카데미' 활용, 콘텐츠 기획·제작과 AI,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역량 갖춘 융합인재 양성(연 200명)

* (장기과정, 50명) 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교육/ (단기, 150명)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

-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'메타버스 융합 대학원', '메타버스 아카데미' 확충·운영(연 370명)

* 기술-인문사회 분야 연합학위 과정 : ▲ 요소기술(XR·VR) + 인문사회 융합 과목 운영 ▲ 콘텐츠 R&D 지원 ▲ 메타버스 기업과 산학협력 지원 등

○ / **(문화기술R&D인력)** ■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석·박사급의 기술고급인력 양성(연 90명)

* 국내외 연구인력 교류 및 국제공동 연구과제 발굴, 다학제 교육과정 및 기술개발 지원

○ / **인력인력** ▶ 미디어 디자인 및 제작·교육·제작·취업까지 연계한 '미디어 DX 아카데미' 신설(연 60명)

- 구직자 대상 인턴십 교육* 통해 기업 수요 충족 및 좋은 일자리 창출

* 청년인턴 임금 지원, 특화 커리큘럼 운영, 직무교육 등

○ / **제작·인력** ▶ 드라마, 코미디, 애니메이션 등 드라마 제작·인력 양성

○ / **인력인력** ▶ 코리아 인력 훈련(연 200명) ▶ 코리아 인력 지원

전업 창작자 육성(연 50팀) → 글로벌 진출(연 3팀) 등 단계별 지원

- 크리에이터 생태계 내 직업군별* 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요 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·창업 지원으로 연결

* (예) ▲ 커머스 크리에이터 ▲ 크리에이터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 등

② 중소·지역방송 활성화

- ▶ **(부록 제1) 방송문화 정비 및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**
완화, 광고규제 특례 도입 및 순수외주제작 규제 완화 검토

구분	현행	개선
지상파방송간 겸영 (MBC 제외)	7%↓(일방) 5%↓(쌍방) 10%↓(전체 수)	완화
지상파-케이블(SO)간 겸영	33%↓	완화
지역 방송광고 규제 특례	-	도입 (예) 프로그램제목광고(협찬)
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	지역 MBC 20%↑ 지역민방 3.2%↑	완화

- ▶ **(부록 제2) 지역방송 시장구조 개선과 협력체계***

- ▶ **(부록 제3) 방송 시장개혁 시스템 고도화**
중소 SO의 IP기반 고화질 방송을 위해 관련 시스템 등 고도화

*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 허용 중('21.6~'25.10월)

2.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

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강화

<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('22~'24년) >

구분	내용
1단계('22)	심의, 모니터링 등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(44억)
2단계('23)	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및 분석·보고 시스템 구축(43억)
3단계('24)	침해 대응 개별 시스템(신고·수사·사업지원 등) 연계·통합(40억)

방문

교방

▶ **(정책 제1호) 문교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**

* 강제력 없는 권리 수준 조정에서 나아가 ▲직권조정 결정 ▲집단분쟁 조정 도입

- 저작권 법률지원센터* 상주 변호사 증원(2명 → 4명) 및 창작자 단체·대학·지자체 등과 연계 강화 등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

* '제2의 검정고무신' 사태 방지를 위해 '23.4월 개소

▶ **(정책 제2호)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**

▶ **(정책 제3호) 문교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**
위해 표준계약서 마련, 노무·법률 상담 등 지원

② 국제 공조 강화 및 민관 협력 확대

- (국제 수사공조 강화) ■ ▲ 한-미 공동대응체계 구축*(협력각서 체결, 수사 정보 교류 및 합동조사·작전공조 등) ▲ 인터폴과의 공조체계 확대 등 추진

* 다수 콘텐츠 유통 불법사이트가 미국 호스팅업체를 이용, 양국간 공조 긴요
(예) 국토안보수사국(HSI) 및 법무부 등 美 법집행기관과의 공동대응 추진

- (해외 침해대응체계 개선) ■ ▲ 해외 침해 원스톱 서비스* 제공(저작권 보호원) ▲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망 확대(한국문화원, 재외공관 등)

* 저작권의 해외 침해를 'COPY112'에 신고 → 상담·피해감정·소송지원 등 서비스 제공

- (민관 공동 대응) ■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* 등 정례 협의회를 통해 민관 상시 협력 및 침해 대응 정보 공유 추진

* 문체·외교·법무부 등 8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, 20개 콘텐츠 협회·단체 참여

- (법률·법정 구조 강화) ■ 시내 고급 경찰서 내부에 있는 법정
경찰청 등과 합동단속 연계 ▲ 불법사이트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

* '23.12월,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등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 → 인니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 검거 및 서비스 종료

- (민·현장사 진·현장 대응) ■ 사스·여권·자금·체크·인천기초·사천* 미

- (세계적 경쟁력 강화) ■ 전 세계 네이버·스마트폰·인터넷·인터넷 기기·인터넷 보호 바우처*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지원

* 콘텐츠 분야 피해기업 대상으로 ▲ 계약서 법률 컨설팅 ▲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▲ 저작권 침해 감정·조사 ▲ 소송 등 지원

VII. 향후 계획

과 제	일 정	담당 부처(직제순)
전략 1. K-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		
①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		
▪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위한 법령개정	'24	기재·과기정통·문체
▪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신설 위한 법령개정	'24	기재·과기정통·문체
② 콘텐츠 투자 확기적 확대		
▪ K-콘텐츠·미디어 펀드 조성 및 운용	'24~	과기정통·문체
▪ 정부 모태펀드 확대 및 운용	계속	문체
▪ 보증·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 다각화 : 보증 신설 및 확대, iPICK과 정부 제작지원 연계	'24~	과기정통·문체
③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		
▪ OTT 특화 제작지원 확대	'24~	문체
▪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(고양)	~'25	문체
▪ 국가지원사업 선정시 방송표준계약서 적용대상 확대	'24~	문체
▪ 콘텐츠 IP 산업진 등 수요-공급 매칭지원	'24~	문체
▪ 콘텐츠 IP 사업 다각화 지원	'24~	문체
전략 2. 미디어·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		
① 인허가제 개선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		
▪ 유료방송 재허가·재승인 폐지 위한 법개정안 제출	~'25	과기정통·방통
▪ 지상파, 종편·보도채널 유효기간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	~'25	방통
▪ 재허가·승인시 부관 부가 원칙 명시	~'25	과기정통·방통
② 소유·겸영규제 완화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		
▪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 위한 시행령 개정	~'24	방통
▪ 일간신문의 SO 등 지분제한 폐지 위한 법개정안 제출	~'25	과기정통
▪ 외국인의 지분 제한 규정 법개정안 제출	~'25	과기정통
▪ 유료방송, 일반PP의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위한 법개정안 제출	~'25	과기정통

과 제	일 정	담당 부처(직제순)
③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제고		
▪ 유료방송의 채널 운용 의무 폐지 위한 시행령 개정	~'25	과기정통
▪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및 오락물 편성규제 폐지 위한 개정안 제출	~'24	과기정통·문체·방통
▪ 방송심의규정 개정 및 공표	~'25	방통/관계부처
④ 광고규제 완화 통한 시장 활력 제고		
▪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제 완화 위한 개정안 제출	~'24	방통
▪ 품목별 광고 금지·제한 규제 완화 검토	'24~	방통/관계부처
전략 3.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		
①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 다각화		
▪ K-미디어·콘텐츠 전용 채널 확대 및 지원	'24~	과기정통
▪ OTT+제작사 컨소시엄 지원	계속	과기정통
▪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거점 확대	'24~'27	문체
▪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	계속	과기정통
▪ 글로벌 방송 영상 및 콘텐츠 마켓 등 개최·참가 지원	계속	과기정통·문체·방통
▪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'웰콘' 고도화	계속	문체
▪ 선도기업-스타트업 협력 사업 추진	'24~	문체
▪ K-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·운영	'24~	문체
② AI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미디어·콘텐츠 산업 고도화		
▪ 워크플로우 단계별 AI 기술 접목 강화	'24~	과기정통·문체
▪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(대전, 문경)	'24~'25	과기정통·문체
▪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(대전)	~'27	문체
▪ 메타버스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원	'24~'28	과기정통·문체
③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		
▪ 콘텐츠 원캠퍼스 확대 운영	'24~	문체
▪ 미디어 DX 아카데미 및 미디어 DX 스텝업 신설	'24~	과기정통

과 제	일 정	담당 부처(직제순)
■ 지역방송 현업인 방송제작 역량 강화 교육	'24~	방통
■ 크리에이터 대상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	'24~	과기정통
■ 창작인력·OTT특화인력·수출전문인력·번역인력 육성	'24~	문체
■ 뉴콘텐츠아카데미 통한 기술융합인력 양성	'24~	문체
■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	계속	과기정통
■ 석·박사급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	'24~'28	문체

전략 4.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

① 미디어·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조성		
■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개정안 제출	~'25	방통
■ 방송관계자들간 콘텐츠사용료 관련 기준 마련	~'24	과기정통·방통
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	'24~	문체
■ 종소·지역방송 경영규제 완화 위한 시행령 개정	~'24	방통
■ 지역채널의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안 제출	~'24	과기정통
②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		
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·	계속	과기정통·문체·방통
■ 한-미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국제 공조 강화	계속	문체